지속가능 발전, 불교 전통서 배우다

〈불교평론〉 '지속가능 발전과 불교' 학술심포지엄

빈곤 · 식량 · 환경 · 생명 등
사회 문제, 불교적 해법 모색
"연기적 공존 필요" 한목소리
"비우고 나누는 게 최고 대안"

현대 사회의 화두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불교적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계 학술 계간지인 〈불교평론〉은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불교적 지혜'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도흠 한양대 교수는 '문명의 사멸과 지속에 대한 불교적 성찰과 대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은 '비움과 나눔'에서 시작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지속가능한 실천을 하지 않으면 인류는 머지않아 사멸할 임계점에 도달했다"면서 "우리는 종점을 내다보며 일단 멈춰서 진지하게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사회와 불교의 접점을 살폈다.

"연기적 생태론을 기반한 불교를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공존을 추구하게 된다"고 밝힌 이 교수는 "이를 통해 에너지를 덜 사용하면서도 만족한 삶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불교의 교리는 무소유를 지향하고 나눔을 장려하고 이타적 삶을 추구하기에 교리상 반자본주의적"이라며 "눈부처공동체를 통해 자본주의에서의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나누고 비우는 것'을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최고의 대안으로 이 교수는 꼽았다. 그는 "서로 눈동자에서 눈부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섬겨 부처로 만들 때 비로서 나 또한 부처가 되는 것"이라며 "이보다 더한 삶의 목적과 지속의 목적이 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이철헌 동국대 교수는 '환경위기와 생태적 사회를 위한 불교적 지혜'를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사회로의 대안이 불교에 있음을 대중에게 상기시켰다.

이 교수는 "인간과 동식물은 서로 의지하고 관계를 맺는다. 결국 인간은 모든 자연환경에 의지한다"며 "연기법은 공존의 원리이자 조화의 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생태적 삶을 살기 위한 방법으로 △의복의 간소화 △채식의 생활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욕지족의 생활화 △조금 불편하게 살기 등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지구 온난화의 주된 원인은 축산업이다. 사육된 동물들이 내뿜는 트림과 방귀는 전세계 메탄가스 발생의 37%를 차지한다"면서 "채식은 불교의 기본 계율인 불살생계를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적극적인 운동이다. 채식만으로도 자비를 실천하고 자연환경을 살리는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교에서 말하는 인드라망은 '더불어 사는 삶'을 말한다"며 "모든 생태계가 서로 의존하고 생존함으로서 상호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식량문제 해결의 길'을 발표한 이승숙 미르문화원 대표는 불교전통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가능성을 찾았다.

그는 대승불교 문화권을 중심으로 이어온 채식 전통이 지속가능성을 실현할 대안으로 주목했다. 특히 불교에서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현대인에게 다른 생명과 인간을 대한 자세를 가르치고 있다고 봤다.

이 대표는 "불교가 자연계에서 인간의 특수한 위치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인간계 내에서 개인의 특별한 지위를 주장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이런 불교적 태도에서 자연에 대한 수탈과 인간에 대한 착취를 제어할 사고의 단초가 발견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장성우(동국대)의 '빈곤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대책' · 유상호(한양대)의 '생명에 대한 간섭과 불교적 지혜' · 이찬수(서울대)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감폭력과 평화구축의 길' · 박병기(교원대)의 '교육문제의 불교적 해석과 대한 모색' 등 주제 발표가 진행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대승불교 교학 어떻게 응용할까

불교학연구회, 추계 논문발표회

대승불교 교학을 어떻게 응용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9월 9일 오후1시부터 7시까지 동국대 충무로영상센터 227호에서 '대승불교 교학과 현대적 응용'을 주제로 가을 논문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발표회의 특징은 박사 과정에 있는 연구자 4명이 주제 발표를 한다는 점이다.

박현주(동국대 박사과정) 씨는 '조선후기 불교의 심성 논의에 나타난 종밀의 영향'을, 김유리(동국대 박사과정) 씨는 '북한의 화쟁 사상'을 발표한다, 또한 서정원(동국대 박사과정) 씨는 '〈묘승정경〉의 직자에 대한 소고'를, 이길산(서울대 박사과정) 씨는 '〈섭대승론〉 염오의 존재증명 제1증에 관하여 - 불공부병 개념을 중심으로'를 각각 주제 발표한다.

논평자로는 손성필(한국고전번역원), 정희경(동국대), 김지연(금강대), 조기룡(동국대), 박기열(금강대), 안환기(서울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한국미술사연구소 '석탑 · 사리장엄' 강좌

통일신라 석탑과 사리장엄 등을 조명하는 강좌가 열린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9월 18일~12월 11일 매주 월요일 오후 2시 서울 종로 한국미술사연구소에서 제50회 박물관대학 미술사 강좌를 연다.

'통일신라 석탑 · 사리장엄 · 부조상'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통일신라기 불교 문화유산 전반에 대한 강좌로 꾸며진다.

강좌는 △3층석탑의 발생과 감은사 3층석탑 및 찬란한 사리장치 △불국사 석가, 다보탑과 사리장치의 비밀 △전탑의 전개와 송림사 전탑 및 세계 최고의 유리제 사리기 △탑돌이 신앙과 황복사지 석탑 및 사리장치의 수수께끼 △통일신라 8세기 쌍탑의 전개와 갈항사 석탑 및 사리장치 △9세기 삼층석탑(보림사, 실상사 등)의 전개와 지방화 △통일신라 9세기 석탑의 사리장치 △백제 석탑의 계승으로 본 익산 왕궁리 석탑과 사리장엄(금판경)의 역사적 의의 △경주지역 신라석탑과 팔부중상 △통일신라 9세기의 승탑과 사천왕상 등장의 역사적 의미 △강원지역 신라석탑과 팔부중상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02)3673-3426 신성민 기자

"南北불교, 안정적 교류 아이템 발굴해야"

박재산 민추본 사무국장 '남북 불교교류'로 석사학위

교류 20년 현황 · 문제점 조명
지속가능한 사업 고민 필요
종단 차원 로드맵 개발 제안도


조계종과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 함께 금강산 신계사에서 공동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사찰 복원과 같은 개발 협력 사업은 향후 불교계가 추진해야 할 중요한 통일 사업이다.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는 그간 북한 불교와 교류를 통해 통일 사업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정치 · 군사적 갈등이 불거지면 남북 불교교류는 번번이 중단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교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산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국장은 '남북한 불교교류 · 협력에 관한 연구'로 동국대 북한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박 사무국장은 조계종을 중심으로 진행된 남북 불교 교류사업을 현황을 점검하고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했다.

박 사무국장은 남북한 불교교류 · 협력사업에 나타난 특징에 대해 "교류 · 협력사업의 행위 주체들인 남북한 불교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 · 발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면서 "이는 남북 불교교류가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 민족동질성 회복이라는 보다 보편적 의미로 기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점으로는 △금강산이라는 특정 지역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과 △제도화 미비 △정치적 상화에 의한 종속성의 문제 등을 꼽았다.

이를 넘어서기 위해 박 사무국장은 공존과 상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통일교육을 전 종단적으로 확산시켜야 하며, 지속가능한 교류 · 협력 아이템을 발굴 · 개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존 긴급구호 차원의 인도적 지원에서 개발 협력 지원으로 전환을 고민할 것으로 충고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국장은 "특히 불교문화유산의 남북공동보존 및 활용을 통해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불교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 정부가 "민간 교류 확대는 남북관계를 풀어갈 소중한 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불교계가 나서 교류 · 협력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박 사무국장의 주장이다.

박 사무국장은 "향후 종단 차원에서 '남북한 불교교류 · 협력 5개년 개혁'과 같은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민족 화해와 평화, 공존과 상생의 환경이 만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초대 문화재연구소장 업적을 기리다

경주문화재硏, 김정기 저작집 발간 학술대회

초대 문화재연구소장을 역임했던 창신 김정기(昌山 金正基, 1930~2015)의 업적을 기리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문화재청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종훈)는 8월 24일 경주 드림센터 스위트 호텔에서 '한국 문화유적 조사 · 연구의 개척과 창산 김정기'를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주도로 고인의 고고학, 건축학분야 100여 편의 논문을 선별하여 집성한 〈창산 김정기 저작집(전 3권)〉 완간을 기념해 마련됐다.

창산 김정기 박사는 1959년 우리나라 기술과 인력으로 최초 진행된 경주 감은사지 발굴조사를 주도했다. 또한, 문화재관리국(現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실의 수장부터 초대 문화재연구소장으로 역임하기까지 경주 불국사, 동궁과 월지, 천마총, 황남대총과 경주 황룡사지 등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의 근간이 되는 경주 지역 중요 발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또한 현장 고고학과 건축학의 기초를 세워 일제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생적인 학문의 토대를 구축하고 후학 양성에도 힘을 실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는 △발굴왕 창산 김정기 박사와 한국 고고학 △창산 김정기 선생의 수혈주거지 연구 발표를 통해 한국 고고학사에 '발굴왕'으로 불린 고인이 약 30년 동안 전국의 유적과 유물을 조사하고 연구한 성과를 살펴봤다. △창산 선생의 사지 연구와 △창산 선생의 고건축 연구 발표에서는 고고학뿐만 아니라 건축학사 분야에서 고인의 연구 위상을 조명했다.

신성민 기자

제7회 반야학술상 9월 10일까지 접수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이 제7회 반야학술상을 공모한다.

반야학술상 공모는 저술과 논문 부문으로 나눠 진행되며, 오는 9월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저술상은 응모 마감일 기준으로 2년간 출간된 불교학 저서 및 역서를 대상으로 하며, 논문상은 2년간 국내외 불교학, 종교학, 철학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심사한다. 두 부문 모두 수상자에게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공모 참가자는 반야불교문화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지원서와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010)4731-3471 신성민 기자

(사) 한 국 미 륵 불 교

봉 제2회 선조사 제례 및 법계품수 대법회 행

(사)한국미륵불교 법맥인 西天과 東土 직계 큰스님의 靈位를 모신 제례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사)한국미륵불교 법계품수와 효사랑 큰잔치도 같이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日 時 : 불기2561(2017)년 9월 10일 일요일 오전 10시
● 場 所 : 경남 고성군 대가면 양화리 1길 102-15 대무량사
● 문 의 : 055)672-4394

● 1부 : 제 례 - 선조사 고암 상언 대종사 외 19위 제례 봉행
● 2부 : 법계품수 - 한국미륵불교 대종사 : 혜안스님. 행화스님
한국미륵불교 종 사 : 삼봉스님. 원봉스님
● 3부 : 孝사랑 큰잔치 - (사)가야국악단원 축하공연(민요, 가요, 춤, 장기자랑 등)

● 주최 : (사)한국미륵불교 ● 주관 : (사)한국미륵불교. 법련문도회